

# Seoul IT Park를 건설하자

## (서울지식정보산업단지)

글\_ 김윤호 KIST 명예연구원 yhkim@uos.ac.kr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각 성에는 한국 관련 연구팀이 있었지만 이젠 대부분 해체되었다. 오히려 ‘한국에서 구미 경제이론을 운용하여 실패한 사례를 참조’ 하는 형편이 되었고,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10%인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2~5%대로 추락했고, 21세기형 첨단산업단지도 하나 갖추지 못했으며, 중국 인구의 3~4% 수준인 한국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 세계 최강국을 준비하는 중국

1996년 6월 중국 장쩌민 주석은 10년 안에 대만 신죽과학공업연구단지와 같은 규모의 단지를 건설하고, 20년 안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따라잡겠다는 ‘중관촌(ZhongGuanChun Science Park)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관촌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 서북부 해정구가 중심지인 베이징시내에 위치해 있다. 도시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인터넷 사업, IT관련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중관촌은 1980년대 초 대학과 연구기관을 겨냥해 수입품 전자기기와 부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모여들었고, 전자기기를 제조 판매하다가 1988년 중국 최초로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받은 후 IT관련 기업들이 유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1만개가 넘는 첨단벤처기업들이 인근에 있는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과학기술대 등 73개 대학들로부터 매년 3만 명의 학사와 6천 명의 석사 졸업자를 공급받아 IT업계의 생명인 우수한 인재공급의 용이성과 산·학협력관계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미 68개 일류대학과 213개 첨단 분야 연구소에서 배출된 50만 명의 고급인력이 이곳 중관촌의

자랑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중관촌이 연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는 주요인은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기업 친화적이어서 대학에 벤처캐피털을 유치하여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기업보다 앞서 뛰는 중국 관료들의 서비스정신과 전문성, 공장설립 신청서를 내면 2주 이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주는 적극적인 첨단기업 우대정책, 즉 세계적인 첨단기술보유 기업들이 모여들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바로 중관촌의 성공비결이다.

‘80년대는 심천’, ‘90년대는 푸둥’, ‘21세기는 중관촌’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관촌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강력한 비전 제시자이자 최고 통치자였던 장쩌민 주석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9인이 모두 이공계출신이고 국가지도층의 70%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 중국 고도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는 이공계출신 주도하에 정치, 경제, 행정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이 크게 뒤쳐져 서구선진국들처럼 저속성장을 하거나 남미국가들처럼 마이너스성장을 하게 된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科教興國’을 국가정책기조로 채택하여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 기지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미 세계 500대 기업 R&D센터 중 130개를 유치했다. 특히 입지여건이 좋은 상하이 지역에 100개 이상이 밀집해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시멘트의 50%, 석유 35%, 석탄 30%, 철강 25%를 소비하고 생산하면서 첨단산업생산기술을 확보하고자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임을 내세워 최첨단 생산설비도입과 이에 따른 기술의 제공 및 훈련을 강력히 요구하여 건설될 공장을 가동하는 선진생산기술보유국으로 고속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

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첨단지식산업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공계 국비 유학생 70만 명을 해외에 파견하여 이중 17만 명이 귀국하여 중국의 첨단산업분야를 선도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도 소프트웨어 시장 30조 원, 수출 28억 달러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세계의 하청공장'에서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여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초고속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 미국의 성장엔진 실리콘밸리

미국의 발전은 유럽에 가까운 뉴욕, 워싱턴,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에서 농업중심지인 시카고를 위시한 중부권을 거쳐,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서부로 이동하는 추세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첨단벤처산업이 오늘날의 세계 최강국 미국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옮겨갔다. 전후 혼란스러운 유럽이나 아시아보다는 전쟁중 꾸준히 성장발전해온 미국은 많은 월급을 주는 좋은 직장이 전 세계인에게 열려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전쟁피해를 본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이 안정된 환경을 갖춘 미국은 많은 고급두뇌를 유치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생, 과학기술자, 노동자, 자본가들이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의 산실 실리콘밸리에 모여들었고, 더욱이 첨단정보통신산업의 산·학협력기반조성에 필수적인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단기간내에 기술개발-사업화성공-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신화적인 첨단산업단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실리콘밸리는 인구 250만 명 중 백인 40%, 아시아계 30%, 멕시코계 23%로 구성된 인종 혼합지역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IC가 실리콘밸리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도(India)와 중국(China)계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미국 대륙횡단 철도부설에 중국인 꾸리를 고용하여 거부가 된 르랜드 스탠퍼드가 '쓸모 있는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설립한 스탠퍼드대학 졸업생 중 70%가

동양계라고 한다. 미국에서 학력(고졸 이상 83%, 대졸 이상 40%)이 가장 높고,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이곳은 1인당 평균소득이 5만4천500달러(미국 평균소득 3만2천 달러의 1.7배)로 가장 많으며, 하이테크업체 7천 개, 특히 미국 500대 하이테크업체 중 61개사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성공사례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 국가 100년 대계의 기틀 'Seoul IT Park'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1970년에, 중국은 1996년에 대도시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교육과 연계시켜 교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21세기형 첨단 고부가가치 정보통신산업단지를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중국은 중관촌에 건설하여 성공시켰다. 우리도 이러한 성공사례를 본받아 'Seoul IT Park(서울 지식정보산업단지)'를 건설하여야만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우수한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캠퍼스내에 산·학협동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젊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일등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늦어지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면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마저도 퇴출되고 만다. 국가 최고 통치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들이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생산성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어려운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줄 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교육과 연계된 연구개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력한 행정지원으로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때 교육도, 기술개발도, 사업화도 성공할 수 있다. 온 국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도성장발전의 기틀이 될 'Seoul IT Park'가 건설되면 개인, 단체, 기업, 국가 모두의 힘의 결집에 필요한 국가 100년 대계가 마련될 것이다. ㉔